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⁹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¹⁰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여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¹¹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¹²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9-12]

1부 중보기도 : 목회1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마리아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0:50am-11:20am, 본당)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 중보자들을 위한 영적 무장 기도

교회 전체 Property 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보호막을 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와 불 말과 불 병거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보자들에게 에베소서 6 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씩니다. 가슴에는 의의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니다. 발에는 평안을 예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시간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모든 중보자들과 성도들에게서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허물어진 곳은 메워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며,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의 웃음, 의와 평강의 웃음, 거룩한 순결의 웃음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했습니다.

이 시간 주일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 4:23]

1.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열납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2.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온 땅 가득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을 주신 주님! 은혜 제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4. 주일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므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충성스럽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5. 모든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고,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세워가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기도자의 소명을 겸손과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1.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2.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신앙고백이 되어 천군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3.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케니박목사님, 변재령목사님, 김상대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채수전장로님, 조석은장로님, 황남식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1.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깊이 회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갈등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위로가, 억압이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게 하셔서 주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3.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의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복음의 왕성한 추수를 이루는 왕의 군대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4.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5.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이 밟는 땅마다 은혜의 샘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예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주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덮으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3. 말씀을 통해 '연합'의 영성이 몸된 제단과 성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4.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더 큰 성령의 불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며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 연합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의와 불순종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받으므로 고침 받게 하옵소서.
- 예배드리는 자의 머리마다 성령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고난이 치유되고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 이웃과 열방의 하늘의 보고를 여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 말씀을 통해, 진리의 불을 밝히시고 타오르게 하셔서 이 시대와 열방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미디어, 음향, 조명 및 인터넷 생방송 등 모든 시스템 작동에 방해가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씻겨 가도록 하옵소서.
-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옵소서
- 귀한 헌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고 분명하게 임재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이 땅에 다음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2.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가 건강하고 바른 진리의 세계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3. 우리의 자녀세대 가운데서 요셉, 여호수아, 다니엘, 느헤미야, 다윗, 에스터, 바울같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경건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4. 코로나 상황에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미디어를 죄짓는 통로가 아니라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5.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6. 지난 주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곧 있을 대학부 수련회**(8/5-8/7)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유아유치부에서 대학부, EM 까지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7.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 받아 하나님 나라의 정금 그릇과 같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세대들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8. 성경적 가정되게 하시고,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며, 가족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9. **Jesus' Light 자녀들도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도는도다.(시103:1-3)라고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질병, 특별히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3. 모든 상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깨끗케 하셔서 속히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4. 병원에 계신 환우들은 더욱더 강건한 모습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5. 병상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모든 연약함을 덮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 성령님을 힘입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3.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GMI 선교사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4. 선교지에서도 '일천번제와 100일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선교사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필요마다 채워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5. 선교지의 현지교회와 사역자들이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영적 대추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선교사님(인도) 방과후 학교의 재개를 위해/온라인 한국어 수업/도시락 사역과 치료사역을 위해/ 복음 에니메이션 제작 • 박성용 선교사님(필리핀) 코로나의 종식/SMIC 교회 성장을 위해/ 선교사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 선교사역에 필요가 채워지도록/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화산으로 인해 폐허가 된 SMIC 교회가 다시 재건되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도현 선교사님(베네수엘라)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아마존 사역을 재개 하길 원합니다. 선교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독교 세계관 학교 온라인 수업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소천한 현지 사역자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 이병철 선교사님(탄자니아) 새로운 비자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 건축비용이 채워지도록 <p style="text-align: center;">오늘도 전 세계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성직 선교사님(C국)- 심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하시도록 • 테팔 이예신 선교사님-혈액암 투병 중에 유방암이 재발견 되었습니다. 모든 암에서 치유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전립선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터키 양창모 선교사님-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님-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 사할린 김지경 선교사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 알타이 최정진 선교사님- 2차 백신 접종 후 더 불편해진 다리, 튼튼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주선민 선교사님(러시아)- 팔 세아(9세) 왼쪽 다리 연장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임진섭 선교사님(태국)- 성대의 물혹이 없어지도록, 발목이 회복되도록 • 박경덕 선교사님(태국)- 안구건조증



26 일 새벽부터 'JAMA 영적대각성 온라인 부흥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 개 이상의 한인교회들이 동참하게 하옵시고 미국의 부흥과 회복, 가정, 학교 사회,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8/2	8/3	8/4	8/5	8/6	8/7
강순영목사	안지웅목사	위성교목사	이재호목사	배성호목사	김춘근교수
JAMA	New Hope Church	뉴라이프교회	휴스톤 중앙장로교회	JAMA JH&H	JAMA 설립자

미국 남침례교, 대법원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취소 촉구

미국 남침례교회 산하 단체 및 종교 단체들이 미 대법원에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뱀티스트프레스가 보도했다. 27 일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가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1973 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낙태 허용시기를 임신 28 주에서 23 주로 앞당긴 1992 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지' 판결의 번복을 요구하는 법정조언자(Amici Curiae)의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 의견서는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USCCB)가 임신 15 주 이후 또는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법을 지지하는 의견서로, 윤리종교자유위원회 외에도 미국 복음주의협회, 루터교-미주리 시노드, 빌록시와 잭슨 가톨릭 교구, 미국 정교회 주교협의회가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 제한 법률은 1심과 2심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인, 주요 사회기관 신뢰도 하락... 성경적 가치관 회복돼야

갤럽은 미국 50 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자치구(워싱턴 D.C.)에 거주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성인 1381 명을 대상으로 올해 6 월 1일부터 7 월 5일까지 주요 사회기관 16 개에 대한 '기관 신뢰도' 전화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의회, 텔레비전 뉴스, 대기업, 형사 사법제도로 나타났다. 특히 의회나 대기업에 대한 신뢰는 2007 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미국 남침례회 선교사들, 도쿄 올림픽 현장서 복음 전해

인구의 99%가 예수님을 모르는 일본에서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IMB) 소속 현지 선교사들이 도쿄 올림픽을 맞아 일본 기독교인들과 함께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뱀티스트프레스가 보도했다.

오늘
방

에리트레아 목사 체포 성도 구금, 나이지리아 납치 학생 81 명 억류...오픈도어 기도요청
아프간, 탈레반 보복 피해 통역사 가족 2500 명 미국 도착
콜롬비아 파나마 국경에 이민자 급증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 사람으로 취급 안해...철저히 죽도록 방치
남동 유럽, 40 도 넘는 열파 연일... 터키는 3 명 사망
코로나로 고아가 된 어린이 150 만 명 넘어... "해결책은 고아원 아닌 가족"
에자연,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전국 30 여 교회 탄원서 제출
북한, 성경 갖고 있다고 공개처형...기독교 탄압 극심
한국인, "코로나에 가장 위험한 공간을 교회"... 정부와 미디어의 '교회발 코로나' 세뇌 결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은 월요일 새벽 전혀 뜻밖에도 비를 맞으며 교회를 향하며 기뻐했습니다. JAMA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 비가 쏟아지는 뻘을 보면서 너무도 감격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남가주는 가뭄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폭염으로 산불로 재해가 심한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때뭍라버린 갈급한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영적으로 때마르며 무섭게 타락해져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에 영적으로 폭포수 같은 시원한 은혜가 쏟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집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교회를 향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며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에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교회들 자체적으로 우리교회처럼 새벽예배를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주간도 JAMA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번 JAMA 영적 대각성 새벽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 오전에는 O.C 장로 협의회 주최 미자립교회와 불우이웃돕기 위한 골프대회 말씀과 기도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CTS TV 미주 개국 17주년 기념 과 공중파 채널 18.8 송출 감사예배 설교, 목요일에는 성도님들 사업체 심방과 저녁에는 전도폭발 Youth 사역에 말씀과 기도를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문화 사역국에서 뮤지컬 “다윗 왕”을 준비하며 첫 감사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시는 덕분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도님들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바이블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예배와 100일 작성 기도회와 JAMA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영육간에 회복과 미국의 영적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목사 드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질병을 치료해주는 간호사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도덕선생님.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할 텐데 손해 볼 것 같아 믿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가진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상을 가져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기 원하신다는 올바른 인상을 가질 때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마귀의 참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주님과 교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만났고, 마가복음 1장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물을 모두 던져 버리고 주님을 따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시 새벽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는 또 나를 떠났느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 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시한번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막 16:7a) 천사를 통해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라고하면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주님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던 자신이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았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가운데에 계시던 사흘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절망하며 자신에 대한 환멸가운데에 있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나 같은 인간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 줄 때 베드로는 용기백배해서 빈 무덤으로 달려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당신을 만나 주셨던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한 데 모이십시오

기상 나팔소리가 들리면 모든 병사들이 막사에서 나와 한 자리에 모입니다. 기상 나팔은 개별적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상 나팔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려떠지게 하려면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원수의 요새를 빼앗을 때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18 세기 영국을 변화시킨 감리교 운동의 능력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는 새벽 기도회였고, 둘째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서로 권면하고 격려한 구역 예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같은 군대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부대로 소집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온전히 깨어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영적인 자세로 준비되어 있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아주는 동료 투사로 소집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세를 갖추며, 준비하고, 함께 출발할 때입니다.

협력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 그 결과 무리지어 비행을 하면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됐다. 자신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다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자. 당신과 꾸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들이 당신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아이디어와 동기, 자신감, 지식을 제공한다.

당신이 진정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웃을 먼저 행복하게 해줘라. 그리고 필요한 이웃이 돼라. 성경은 말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강풍을 이겨낸 비결

미국의 서부 고지대에 있는 세코이아공원은 항상 강풍이 몰아친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세코이아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채 뽑히는 일이 허다했다.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했다. 나무들은 의외로 땅에 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속에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또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세코이아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낸 비결이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서로 돕고 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세코이아나무처럼 단단하게 뭉치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도 자신을 내팽개치듯 홀로 위기속에 내몰 것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자명하다. 독불장군은 미래가 없다.